



오네시모 선교회

NEWSLETTER

P.O. Box 247 Buena Park, CA 90621 (714)739-9100

Non-Profit ID No. 95-4667736 | 501 C3

2025년 겨울

Vol. 3

빌레몬서 1:10-11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물가에서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앞에는 길을 막고 있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상기시키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13)
순종하여 모세가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출애굽기 14:21).

물이 벽처럼 솟아올랐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출애굽기 14:22)
이집트 군대가 그들을 뒤쫓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닷물이 다시 돌아왔고,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출애굽기 14:30)

이 기적은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신실하심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 역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두려움과 압박, 상황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각자의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27)

불안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쉬라고 부르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4)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19)

오늘도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을 위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릭 목사의 인사말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때, 우리는 거룩한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익숙한 시간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아직 다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물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그쳐 서고 백성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더라.”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물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고 강하게 했던 광야의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목적이 가득한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선하심이 펼쳐질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물러설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입니다. 기쁨과 기대, 그리고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문도 크게 여신다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기대가 가득하고, 우리의 걸음은 믿음으로 굳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벅찬 확신으로 우리의 영이 높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건너갑시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물가로 들어갑시다.

다가오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리고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데릭 목사





오네시모 선교회

글로벌 오네시모



김석기 목사님과 사모님은 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김포 쉘터가 운영되던 시기에, 보통 추수감사절 무렵마다 2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여 오네시모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쉘터가 문을 닫은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세계에서 유일한 민간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주최한 4일간의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개국에서 온 교정 선교 사역자들이 함께한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회복과 변화”였으며, 하나님 중심의 교정 선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소망교도소가 15년 동안 신실하게 이어온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 중에 한국에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정 선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을 나누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에는 쉘터가 문을 닫은 뒤 한국으로 추방되어 흩어졌던 오네시모 형제자매들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락이 닿는 분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었고,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음에 깊은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

취임예배



오네시모 선교회는 김석기 목사님께서 33년간의 신실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시고, 데릭 임 목사님이 새로운 대표 및 담임목사로 취임하시는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쁨으로 기념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선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를 감사함으로 기리고 미래를 맞이하며, 오네시모 선교회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 위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놓아 주신 기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3)



오네시모 선교회

구치소 및 교도소 방문



오네시모 선교회는 CTF 솔레다드 교도소에서 열린 성탄 예배에 초청받아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열 명의 팀원들이 함께 이동하여 이 특별한 예배에 참석하였고, 그 자리에서 데릭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찬양하며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념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교제와 영적인 하나 됨이 깊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을 강하게 느끼며 형제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악수하고 미소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작은 행동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담장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

추가 소식

후원회 모임

오네시모 후원회모임은 사역에 꾸준히 참여하며 신실하게 시간을 헌신해 왔습니다. 또한 취임예배를 준비하는 일에도 분주히 섬기며, 한마음으로 헌신과 연합을 보여주었습니다. 12월 초에 두 번째 그라지 세일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를 통해 모인 기금은 연말을 맞아 여러 OST 학생들을 돋기 위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오네시모 신학대학

OST는 학생 수뿐 아니라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공동체를 통해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계절에, 많은 학생들과 형제들이 보내온 성탄 카드와 감사의 메시지로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소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 줍니다.

뉴라이프 사역

우리는 틴 챠린지와의 파트너십을 계속 이어가며, 우리 형제 중 한 분이 약물 재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기쁨으로 축하합니다.

새로운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계속 곁에서 동행하며 그의 앞날에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선교 교회

우리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예배와 기도를 위해 계속해서 모이며, 함께 하나님을 찾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짐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수감자 가족분들도 따뜻하게 초대드리며,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소망과 위로, 그리고 공동체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리셋 • 회복 • 새롭게 함

데릭 임 목사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달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성도는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계절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치고,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지 않은 짐들로 인해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치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어 느려진 컴퓨터처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리셋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이사야 40장 31절은 단순한 위로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리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리셋. 회복. 새로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 생명과 힘을 부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RESET 리셋

리셋은 거룩한 멈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시고, 숨을 고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도록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리셋은 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기도와 찬양, 말씀, 침묵과 맡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흐트러뜨렸던 소음과 분주함,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부드럽게 치워 주십니다.

때로는 믿음 대신 염려가 자리 잡고, 헌신 대신 바쁨이 차지하며, 좋은 습관마저도 형식적인 의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영적인 리셋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될 짐을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다시 공간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 우선순위,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처럼 흐트러진 한 영역을 하나님께 다시 맡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리셋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에 맞추어 줍니다.

RESTORE 회복

리셋 다음에는 회복이 옵니다. 회복은 손상된 것을 고치시고, 소진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임시로 고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 창조하신 모습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치유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격려를 주며, 용서는 사슬을 끊고, 참된 쉼은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설교

삶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실망은 소망을 약하게 만들고, 배신은 상처를 남기며, 영적인 피로는 우리의 열정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의 아픔을 내일의 부르심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전 보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게 빛어 가십니다.

우리가 상처와 쓴뿌리와 지침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회복을 받을 때, 기쁨이 돌아오고, 비전이 새로워지며, 평안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고백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회복은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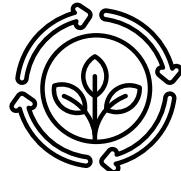
RENEW 새롭게 하심

이제 새로워짐이 옵니다. 새로워짐은 단순히 다시 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새로워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제의 힘으로 내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책임,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준비하고 계시며, 그에 맞는 새로운 힘도 함께 주십니다. 새로워짐은 불평을 감사로, 두려움을 신뢰로, 망설임을 순종으로 바꿀 때—even 아주 작은 발걸음일지라도—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리셋은 과거를 정리하고,
회복은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워짐은 미래를 향한 힘을 풀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변화와 회복의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가장 깊은 부분을 먼저 리셋하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새로워짐으로 급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하나님께서 남은 힘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며, 성령님께서 흐트러진 것을 리셋하시고, 상한 것을 회복하시며, 지쳐 있던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가장 좋은 일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앞에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일어나 담대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워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행”

김석기 목사 | 김경숙 사모

“형제의 눈물과 고백”



집회가 끝난 후, 아내와 나는 쉘터가 문을 닫은 뒤 한국으로 추방되어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끊는 사람들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다시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에 미국에서 살며 저질렀던 어리석은 길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가족 없이 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부의 마음은 마치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한두 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우리를 만나러 와 준 형제자매들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함께 나눈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겹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양평, 평택, 대구, 대전, 그리고 서울에 흩어져 사는 형제자매들을 찾아가며 그들의 삶을 살피고 안부를 묻고 격려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직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제주도 서귀포에 사랑하는 아내와 일곱 살 아들, 다섯 살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따뜻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마흔여덟 살로 쉰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지는 무려 십오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도봉동 쉘터에서 많은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흩어졌고,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약 여덟 달 전, 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는 그 글을 쓰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랐고,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안아 주셨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 말들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아 아프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때때로 그에게 성경 말씀과 찬양을 보내며 기도했고, 힘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되어 그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미 담당 교수님을 따라 다니며 50회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보내는 모든 메시지의 끝에는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나는 제주도로 가기로 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약을 하고, 택시를 부르고, 식당을 예약하는 것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것조차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부탁해 공항으로 향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항공권이 영어 이름으로 발권되어야 했는데, 여행사가 한국 이름으로 발권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새 표를 다시 사지 않으면 비행기에 탈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행”

- 이어짐 -



설상가상으로 그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기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13만 원 정도 하던 항공권이 1인당 40만 원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능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는 전국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기 때문에 좌석이 부족해지고 항공료가 급등한다고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학생들을 위해 배려하는 모습에 나는 깊이 놀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새 표 두장을 구입해 같은 시간대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으러 오겠다고 했던 그 형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목사님, 화장실에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 순간 아내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아마 항암 치료로 인해 구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왜 무리해서 나왔느냐고 타이르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에 젖은 채 배를 움켜쥐고 운전하려 했고, 결국 내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내 시력도 좋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50분 만에 겨우 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눕도록 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상태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전화해 그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서귀포의 작고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에 있었습니다. 거실은 분홍색으로 꾸며져 있었고, 두 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마음이 따뜻한 아내가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아내를 위로하며 아이들을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역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행기로 돌아가야 했기에, 우리는 다음 날 아침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귀포 해변을 천천히 걸으며 그는 자신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지나 소박한 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하며 “여기가 특별한 곳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그곳은 무국으로 유명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국과 생선구이가 나왔지만, 그는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위로하려 하자 그는 밖으로 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 전, 그는 오렌지카운티에서 살았고 나는 그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를 여러 교도소 사역에 성실히 태워다 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LA에서 교도소로 가기 전 쌀국수를 먹으며 그의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LA에서 총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총에 맞았거나 누군가를 쌌을까 두려워 경찰서에 찾아가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날 그의 눈물이 혹시, 지금의 내 나이와 비슷한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었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슬픔이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암은 위암이었고, 이미 온몸에 퍼져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50회가 넘는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국을 몇 숟갈 겨우 뜯은 후 우리는 공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택시 타는 곳까지 우리를 배웅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 간증이 우리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고백이자 예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행”

- 이어짐 -

그는 어린 시절 이민을 와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총기와 마약, 싸움에 빠져 문제아로 살았고 결국 10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고 한국으로 추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추방된 후에도 한동안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아내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그녀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는 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법을 배웠고, 매일 아내와 아이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인연들이 계속 그를 괴롭히자, 그는 결단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제주도로 내려가 새롭게 시작하기로 말입니다. 3년 전, 그는 서귀포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 3년은 꿈같은 시간이었고, 그는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목에 차오른 채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쓰레기 같은 삶을 계속 살았다면, 제 아이들이 ‘저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마음 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풀리지 않은 분노가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말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의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민자로 살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올바른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는지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내의 가족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제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아내와 나는 그의 가정 위에 축복하며,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화곡동으로 돌아온 후, 나는 안드레아 보첼리의 “주기도문” 영상을 그에게 보내 함께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우리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나는 그를 위해 기도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형제님, 오늘은 어떠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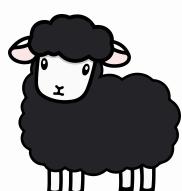
“목사님, 오늘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또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은 없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감사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며, 그분의 이 선언에서 나옵니다: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 6장 14절)

아 멘



“어머니의 고백”

C. KIM



나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었다. 세상의 쾌락을 너무도 사랑하며 그 것에 빠져 살았다.

세상에서 버림받아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아직 길을 잊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되어 주셨다.

그때까지 나의 삶은 어땠을까. 아주 어릴 적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억은 사라지고, 사춘기 무렵부터 나는 세상의 길을 즐기기 시작했다. 어느새 어른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에 다시 나갔지만, 곁모습뿐이었다. 형식적으로 다니며 지루해했고,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

아마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사업이 커지면서 나는 극도로 교만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업은 기울고,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지고, 빚은 쌓여 갔다. 결국 나는 이혼을 선택했다.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나는 어리석게도 내 고집대로 밀어붙였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알지 못했다.

이혼 후에도 나는 교만과 세상 쾌락을 내려놓지 못한 채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었다. 나는 너무 바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아이는 큰 사건에 휘말렸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내 사업도 파산했다. 이 모든 일이 한 달 안에 일어났다. 아이는 열아홉도 되기 전에 감옥에 가게 되었다. 홀로 남은 나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따졌다. 그때조차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 후 15년 동안 나는 이전보다 더 깊이 방황했다. 결국 도박을 배우게 되었고, 모든 것을 잊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싶었다. 밤에 잠들 수 없을 때마다 도박장으로 달려가 중독의 문턱까지 갔다. 아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어느새 마약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더러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백”

이어짐



더 이상 떨어질 곳조차 없을 때, 나는 처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해 달라고, 나를 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주님께 매달렸지만, 그때조차 나의 회개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조금씩 나는 주님께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내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성경을 읽고 억지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제 교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모든 죄와 실패가 하나씩 떠오르며, 내 인생 전체가 죄로 가득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처럼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며, 나의 참된 고향은 그 영광스러운 곳에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나는 진심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나는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루하루 변화시키시며, 모든 것을 한 걸음씩 풀어 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들이 더 넘쳐나게 해 주세요. 오늘도 광야를 걸어가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네시모 선교회에서의 한 봉사자의 이야기

J. CHUN

지난 33년의 오네시모 선교회를 돌아보고, 또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제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저는 김석기 목사님과 사모님을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이신 김경숙 사모님을 통해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석기 목사님과 사모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남가주 여러 교도소를 직접 운전해 다니시며 감옥 사역에 온 마음을 쓸어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많은 혼란과 방황 속에 있을 때, 두 분은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로 저를 불들어 주셨습니다. 열일곱 살에 미국으로 와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목사님과 사모님은 길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인도하고 지켜 주신 영적 부모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199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3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김경숙 사모님과 함께 사역의 기쁨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충성스럽게 섬겨 오셨습니다. 후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늘 사모님 곁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셨습니다. 수감된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음식을 준비했으며, 하프를 배우고 찬송가를 연습하여 그들을 대신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총무와 회장을 비롯한 여러 리더십 역할을 맡아 충성된 동역자의 삶을 몸소 보여 주셨고, 그것은 제게 큰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어머니의 권유로 후원 음악회에 자주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사진 촬영과 미디어 사역을 맡아 섬기게 되었지만, 매년 마음 한편에는 제 사역이 아직 제 자신의 소명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어머니가 다시 후원회 회장을 맡고 한영숙 권사님이 총무로 섬기시던 때, 김석기 목사님의 은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교도소 사역은 중단되었고, 면회는 막혔으며, 목사님의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후원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선교회는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 선교회를 조용히 불들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오네시모의 정체성과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제게 멈추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네시모 선교회에서의 한 봉사자의 이야기

- 이어짐

J. C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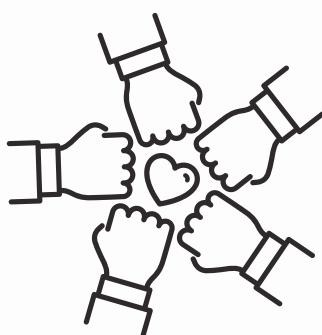
올해 봄, 긴급한 부르심 가운데 데릭 임(임태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 마음에는 많은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하게 응답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석기 목사님께서 33년 동안 세워 오신 사역을, 불평 없이 겸손히 이어받아 지켜 나가시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세대를 잇고, 깊은 간극을 메우며 성경적인 오네시모의 모습을 살아내는 그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결단력 있는 리더십,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 그리고 오네시모 선교회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겸손한 섬김을 통해 그는 경건한 리더십의 참된 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오네시모 선교회와 함께하신 지는 아직 약 8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하는 리더십 아래에서 고등학생부터 원로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로 모여 올해의 후원 음악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가주 많은 사역들이 세대교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임 목사님과 후원회, 이사회, 그리고 모든 동역자들의 신실한 기도와 헌신은 오네시모 선교회의 미래에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김석기 목사님의 눈물로 심어진 씨앗들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이제 오네시모 선교회를 통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으며 미래의 추수를 바라보는 세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계승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자, 저는 어머니께서 평생 불들고 계셨던 기도와 헌신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할 것을 고백합니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단순한 교도소 사역이 아닙니다. 이곳은 세대가 함께 모여, 상황과 상처로 갇혀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이 사역은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살아내며, 우리 또한 은혜가 필요한 죄수였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부르심에 함께하는 동역자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와 과학

과학은 기도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두려움을 줄이며, 정서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집중력과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성경은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힘과 변화로 응답하신다고 확증합니다. 기도는 빈 말이나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강력한 영적 실천입니다.

1. 기도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과학: 기도는 몸의 이완 반응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낮추고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성경: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 시편 34:18

2. 기도는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과학: 기도와 묵상은 두려움과 관련된 뇌 활동을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경: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 빌립보서 4:6-7

3. 기도는 힘을 줍니다

과학: 규칙적인 기도는 정서적 회복력과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높여 줍니다.

성경: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 이사야 40:31

4. 기도는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과학: 기도는 집중력, 자기 절제, 정신적 균형을 향상시킵니다.

성경: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 로마서 12:2

5. 기도는 용서와 치유를 돋습니다

과학: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공감 능력이 커지고 분노와 적대감이 줄어듭니다.

성경: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 시편 51:10

6. 기도는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과학: 기도의 가장 큰 효과는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 고린도후서 5:17

기억하세요

기도에는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과학은 기도가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나이다.”

— 시편 10:17

감옥의 철창 뒤에 있어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기도는 어떤 자물쇠도 막을 수 없는 문을 엽니다.

